

미덕의 언어로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인천(仁川)

박옥현 (인하대학교)

1. 서론

200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는 심화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다문화 사회화에 있어 1번지라 할 수 있다. 예컨대 2020년 4월 기준, 인천시 다문화가정 재학생 수는 8천 852명인데, 이는 인천시 전체 학생(3만1천138명)의 2.9%에 해당한다. 즉 인천 지역의 537개 교 중 92.2%(495개교)에 다문화학생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인천 지역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율은 11.9%로 전국 평균(7.4%)보다 높다. 결론적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율에 있어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중부일보, 2021). 이와 같이 지역 사회가 갖는 교육환경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어머니에게 한국어를 직접 배우기 어려운 다문화가정 자녀는 한국어 학습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예컨대 한국어 기반 교육과정에서 10%정도의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자녀는 학습부진 등의 학교 부적응이 나타나고 있다(서혁, 2017).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는 한국어 의사소통에서 큰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일부 교과 지문 등 문어에서는 전문 용어나 문법적 표현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 자녀 절반가량은 정상적인 학업 참여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놓여있다(정재영·김선정, 2021). 특히 초등학교 다문화학생의 학습부진은 중학교로 이어지는데, 중도입국 중학생의 학습결손 정도는 중도입국 초등학생보다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은 문해력 발달의 지체는 언어를 매개로 형성되는 추상적 사고능력의 형성과 개념화 능력발달의 지체로 이어지게 되는데(김옥선, 2010), 이는 결국 이들의 기초학습 능력 저하로 이어진다(박옥현, 2022).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가족센터)를 통해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에게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지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 지역 9개 가족센터 중 계양구(桂陽區) 가족센터는 전국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다문화가정을 지원함에 있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사업에서 방문교육지도사(이하, 지도사)는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1:1 맞춤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및 생활지도는 물론 심리정서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도사는 한국 이주 5년 이내의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에게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지도를 담당하며 한국어로 소통하는바, 다문화가족의 한국어교육 등에 있어 지도사의 역할은 크다.

또한, 2013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인지, 정서, 행동 등에서 어려움이 있는 초등1학년부터 고등 2학년까지의 학생을 위한 1:1 맞춤 학습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대상군은 학습문제와 문제행동을 지닌 학생이다. 학습문제란 교과 학습 부진만을 의미하지 않으나 기초 학습부진, 한글 미해득 등이 우선시 된다. 특히 다문화 이주민이 많은 지역 학습클리닉센터에는 한국인가정 학생은 물론이고 다문화가정 학생 또한 의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인천시 교육청 또한 운영하고 있다(경인매일, 2021).

청소년기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식, 기능, 태도를 익히며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한국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한국어 교육은 중요하다. 특히 한국어 소통에서 바르고 고운 말은 중요하다. 예컨대 김영순·최승은·김정희·황해영·박봉수(2019)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가족회의에서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자는 규칙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데, 거친 성격이었던 자녀가 존댓말을 사용하며 긍정적으로 성격이 변화함을 경험하였다. 이처럼 ‘말은 힘이 세다.’ 이에 미덕의 언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을 제안하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아름다운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인천은 한국 다문화 사회화 1번지이기 때문에 본 프로젝트가 전국 다문화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글 해독 수준에 맞춘 긍정의 한국어 학습 소재의 개발과 제시를 제안한다. 특히 한국의 국가 위상이 높아지며 전 세계적인 한국어 학습자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어 학습자에게 긍정의 한국어 소재를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곧 한국을 긍정적으로 세계에 알리며 선진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를 구축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내용은 “미덕의 언어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학습은 어떠한가?”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한국어 교육의 원리

한글은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글자로 과학성과 체계성이 뛰어나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쓰기 쉬운 글자이다. 반면 한글은 글자 체계가 과학적으로 우수하여 외국인 학습자가 인터넷 학습으로 한글을 깨치고 한글을 읽는 것을 볼 수 있다(한명숙, 2019). 이에 한글 해독 지도에 있어 단지 글자를 읽는 것과 문해력을 갖춘 것과는 구분하여야 한다.

한글 해독 교육이란 한글을 배우는 학습자가 한글 구조의 체계를 익히고, 한글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한글 해독 교육은 학습자들이 한글을 익혀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도남, 2003). 즉 한국어 기반 교육과정에서 한글을 해독하지 않고는 어떤 학습도 이루기 어려우므로 한글 해독은 기초학습 능력의 근간이다. 한편 유네스코는 “문해력을 다양한 내용에 대한 글과 출판물을 사용하여 정의, 이해, 해석, 창작, 의사소통,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김윤정, 2021). 또한 문해력은 문자를 해독하는 초기문해를 포함하는 기초적 수준의 읽고 쓰는 능력인 기초문해와 일상생활 및 학습, 직업 생활에 필요한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 기초적인 비판적 독해 등의 고등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기능문해를 말한다(이경화, 2019)

한글 해독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특정한 낱말의 의미를 알고 읽고 쓸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문자의 의미를 이해하여 읽고, 의미를 문자로 표현하여 쓰는 이러한 인지적 조작 과정에서 어휘는 핵심적인 위상을 지닌다. 이는 한글 해독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어휘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어를 학습함에 있어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할 것은 어휘일 것이다(이경남 외, 2018).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초등 저학년 교사들은 초기 문자 지도 내용 중 보완할 내용으로 어휘지도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이경화·전제웅, 2007). 반면 한글 해독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어떤 어휘를 선정하여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경남·박혜림·이경화, 2018).

어휘력의 전제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일부 한글 해독을 위한 기초 어휘에 무의미 단어를 포함하여 해독, 유창성을 연습하는 데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초 어휘는 수용 어휘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의미의 이해가 가능한 의미 단어이어야 한다. 읽기란 단순히 글자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조직하는 매우 적극적인 사고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이경화·전제웅, 2007) 한글 해독의 소재로서 형태적 특징보다는 의미론적인 특징에 초점을 두고 추상적인 어휘보다는 구체적인 어휘를 기초 어휘로 고려해야 한다(이경남 외, 2018).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학습을 위한 소재로써 첫째, 의미 단어를 선정한다. 둘째, 고빈도 단어에서 저빈도 단어로 나아간다. 셋째, 어휘가 사용되는 상황과 맥락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해당 어휘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2.2 버츄프로젝트의 이해

버츄(virtues)란 미덕을 의미한다. virtue는 힘, 능력, 위력, 에너지를 의미하는 라틴어 virtus에서 유래되었다(조옥진, 2012). 미덕은 인성을 구성하는 인자인데, 인성은 인간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를 말한다. 인성이라는 이름의 광산(鑛山)에 존재하는 최상의 보석을 미덕(美德)이라 하는데, 이는 모든 인간이 원석(原石)의 형태로 지니고 태어나는 본래의 자질이다. 따라서 버츄프로젝트는 미덕을 인류사회를 관통하는 보편적 가치로서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모든 전통에서 미덕이 삶의 궁극적 의미와 직결되어 있는 정신적 가치라고 가르치고 있다. 예컨대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문명이 공존하는 지구촌 시대에 공존을 위한 교각이자 다문화사회의 공용어는 미덕이라 할 수 있다(한국버츄프로젝트, 2013).

버츄프로젝트는 1970년대 중반, 북미의 정신과 의사 린다 캐벌린 포포프(Linda Kavelin Popov)에 의해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이후 1988년 린다 여사는 소아정신과 의사자 비교종교학자인 남편 댄 포포프(Dan Popov)와 월트 디즈니사의 영상감독인 동생 존 캐벌린(John Kavelin)과 공동으로 버츄프로젝트(The Virtues Project)라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완성시켰는데(한국버츄프로젝트, 2013), 이는 현재 91개 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다(조옥진, 2012).

위의 세 사람은 인류의 다양한 정신문화와 종교 전통을 연구한 결과, 그 모든 가르침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것은 바로 미덕이었다. 또한 그들은 미덕의 연마가 인간 정신의 본질이자 삶의 진정한 의미이고 목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이들은 인류사회의 다양한 정신적 유산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300여 가지 미덕들 중에서 52가지¹⁾의 미덕을 선별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현대인의 삶 속에서 내면의 미덕을 효과적으로 일깨우고 강화시킬 수 있는 5가지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버츄프로젝트의 5가지 전략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덕의 언어로 말하라(Speak the Language of the Virtues). 언어는 우리의 인성을 결정짓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는 영감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사기를 꺾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미덕의 언어로 말하기 전략은 수치심이나 불만 대신에 책임감과 자긍심이 자라나게 도와주게 되므로 서로의 내면에서 최선의 길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둘째, 배움의 순간을 인식하라(Recognize Teachable Moments). 일상에서 마주치는 도전의 순간을 미덕을 연마하는 기회로 인식하여 그 속에서 삶의 교훈을 찾아 심층적으로 이해할 기회를 맞이함을 의미한다. 셋째, 미덕의 울타리를 쳐라(Set Clear Boundaries). 존중, 평화, 정의를 토대로 세워진 명확한 규범과 원칙의 경계선은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공간을 조성해 주는 울타리가 된다. 따라서 개인 또는 조직 내 인간관계에서 울타리는 필요하다. 넷째, 정신적 가치를 존중하라(Honor the Spirit). 인간의 고귀함과 인간사회의 정신적 가치를 존중하도록 격려하는 전략이다. 다섯째, 정신적 동반을 제공하라(Offer Spiritual Companionship). 동반은 상대방을 밀거나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 주는 것이다. 이 전략은 초연과 인정의 미덕을 동원하는 경청기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돕는 상담기법의 하나이다(조옥진, 2012; 한국버츄프로젝트, 2013).

김지영, 곽노의(2016)는 버츄를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아동은 자신과 타인의 미덕을 발견하고 연마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개인 차원에서는 자아탄력성을 함양할 수 있었고, 공동체 차원에서는 또래관계 함양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조옥진(2012)는 버츄프로젝트를 통해 긍정적 자존감 신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12세 연구참여자들은 자기주도적으로 성공한 미래의 모습을 꿈꾸며 희망을 가질 수 있도

1) 버츄프로젝트가 선정한 52가지의 미덕은 다음과 같다. 감사, 결의, 겸손, 관용, 근면, 기쁨, 기지, 끈기, 너그łość, 도움, 명예, 목적의식, 믿음직함, 배려, 봉사, 사랑, 사려, 상냥함, 소신, 신뢰, 신용, 열정, 예의, 용기, 용서, 우의, 유연성, 이상품기, 이해, 인내, 인정, 자율, 절도, 정돈, 정의로움, 정직, 존중, 중용, 진실함, 창의성, 책임감, 청결, 초연, 충직, 친절, 타월함, 평온함, 한결같음, 헌신, 협동, 화합, 확신(가나다 순).

록 하는 긍정적 자존감을 불러 넣게 되었다. 또한 영동교육지원청(2014), 세종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2016), 공주교육지원청(2019) 등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버추프로젝트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미덕의 언어를 활용한 한국어 학습에서 미덕(virtues)에 해당하는 어휘는 추상명사에 해당하므로 그 어휘가 사용되는 상황과 맥락이 함께 제시됨이 필요하다. 반면 한국버추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버추카드²⁾나 버추 책받침은 해당 미덕을 설명하고는 있으나 해당 미덕이 사용되는 상황이나 맥락을 제시하는 데 있어 미약한 부분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미덕이 사용되는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는 가치사전 1(채인선, 2005), 가치사전 2(채인선, 2015)가 제시하는 미덕을 사용하려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미덕의 언어를 활용한 한국어 학습을 설계하고, 실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초기 한국어 학습자들이 바르고 고운 한국어를 습득하여, 서로 소통하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목적을 위해 연구참여자는 한국어 학습을 시작한 초등 1-2학년 학생 4명을 선정한다. 특히 이들은 한국인가정 자녀 2명과 다문화가정 자녀 2명 내외로 구성하여 미덕의 언어를 활용한 한국어 학습에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한 연구참여자의 조건은 첫째, 미덕의 언어를 활용한 한국어 학습에 공감한다. 둘째, 가족센터 또는 학습클리닉센터에 의뢰되는 국내출생 한국인가정/다문화가정의 초등 저학년 자녀 또는 중도입국 청소년이다. 셋째, 연구참여자의 자발적 참여의사와 가정 내 학습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위한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은 총 10회기(회기당 50분)로 구성된다. 우선 한글수준평가 및 의뢰서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한글 해득 수준을 점검하고, 프로그램의 시작점을 찾으려 한다. 또한 연구자의 현장 경험을 반영하여 ‘여름방학 한글 튼튼’에 의뢰되는 학습자의 한글 해득 수준에 맞는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설계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미덕의 언어를 활용한 한국어 학습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글수준평가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다. 한글 해득 수준 진단 도구(김영수, 2017)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교 현장의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에게 학생의 한글 해득에 관한 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한글 미해득 학생 보충지도(‘찬찬한글’ 프로그램 활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본 연구의 주교재가 ‘찬찬한글’ 이므로 본 연구에 의뢰되는 초등 저학년 학습자의 한글 해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글 해득 수준 진단 도구를 사용하려 한다.

4. 향후의 과제

본 연구의 기반인 ‘버추프로젝트’는 1993년 유엔사무국으로부터 “모든 문화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계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전형”이라는 극찬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바, 첫째, 미덕의 언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 결과의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미덕의 언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이어 읽기 이해는 물론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접목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프로그램의 접목에 있어 한국을 넘어 일본, 중국, 베트남 등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반면 본 연구를 설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함이 필요한데, 본 연구는 2022년 여름방학 중 실행될 예정이므로 본 발표에 맞추어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어 귀한 자료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성 있음.)

2) 한국버추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버추카드는 총 52개의 미덕을 제시하는데, 카드의 앞면에는 한국 버추프로젝트의 제시하는 52개 미덕 중 1개의 의미가, 뒷면에는 해당 미덕의 활용 방법과 다짐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버추카드 세트에는 카드 활용법을 소개하는 1장의 카드가 또한 제시되어 있다.